

윤리와 사상

1. ③	2. ⑤	3. ⑤	4. ①	5. ⑤
6. ①	7. ③	8. ②	9. ⑤	10. ①
11. ⑤	12. ①	13. ②	14. ④	15. ④
16. ④	17. ③	18. ③	19. ②	20. ①

- 제시문의 스승은 플라톤이다. ③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이성, 기개, 욕망으로 구분하고 각각에서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이 발휘된다고 보았으며, 이성으로 기개와 욕망을 조절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을 정의라고 보았다. ① 플라톤은 일체의 욕구를 모두 부정하지는 않았다. ④ 스토아 학파의 입장이다. ⑤ 플라톤은 철학적 지혜를 갖춘 자가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은 순자의 주장이다. ㉡의 가로 낱말 (A)는 '예악(禮樂)'이고, (B)는 '법치(法治)'이다. 따라서 세로 낱말 (A)는 '예치(禮治)'이다. ⑤ 순자는 인성에 내재하는 도덕적 단서를 부정하기 때문에 성인(聖人)에 의해 제정된 예를 도덕 규범의 원천이자 통치의 표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예라는 사회 규범을 배워 욕구를 다스려야 하고, 통치 또한 예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순자는 도덕 판단의 최종 준거를 예(禮)라고 보았다. ② 맹자의 호연지기(浩然之氣), ③ 덕치(德治), ④ 양능(良能)에 대한 설명이다.
- ㉠의 사상가는 장자이다. ⑤ 장자는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하는 심재(心齋), 조용히 앉아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리는 좌망(坐忘)의 수양을 통해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소요유(逍遙遊)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① 맹자, ② 성리학, ③ 순자의 주장이다. ④ 성리학의 경(敬)의 수양 방법이다.
-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프로타고라스이다. ① 소크라테스는 지식을 모든 덕과 행복의 원천으로 보았다. ② 프로타고라스는 개인이 세상을 판단하는 각각의 기준이 된다고 여겼다. ③ 소크라테스의 입장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상대주의적인 진리관과 윤리관의 입장이다. ④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덕은 참된 앞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⑤ 프로타고라스의 입장이다.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도덕적 삶의 원천으로 보았다.
- 갑은 노자, 을은 맹자이다. 노자는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무위(無爲)의 정치를 통해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으며 백성들이 소박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하였다. 맹자는 인의(仁義)를 기반으로 통치하며 백성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의를 해쳐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폭군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민본주의적 혁명론을 주장하였다. ① 맹자가 긍정의 대답, ② 공자의 정명론으로 맹자도 긍정의 대답, ③ 유교의 대동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맹자가 긍정의 대답, ④ 혁명론을 주장하는 맹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갑은 이항, 을은 이이이다. 이항은 사단은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이를 따른 것',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기를 탄 것'으로 보아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의 연원을 엄격히 구분한다. 이이는 작용이 없는 이는 발하는 까닭이고, 작용이 있는 기는 발하는 것이기에 기가 발하여 이가 기를 탄 것 한 가지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이이의 주장이다. ④ 이는 그 자체로 선한 순선(純善)하다.
-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덕(德)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사단(四端)은 사덕(四德)의 실마리가 아니라 사덕을

- 이루어내는 시작(始)이라고 보았다. 즉 사단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사덕은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① 이이의 주장이다. ⑤ 성리학의 기본 입장이다.
- 갑은 키르케고르, 을은 사르트르이다. ② 키르케고르는 실존을 세 단계로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윤리적 실존은 인생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며 윤리적 규범을 따르지만 자신의 불완전성을 깨닫고 또 다시 절망에 이르러 된다. ① 키르케고르는 선택 상황에 놓인 개인에게 객관성이 아니라 주체성만이 답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주체성이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③ 사르트르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주장하였다. ④ 사르트르는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지만 자유 그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⑤ 키르케고르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이다.
  -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 병은 스피노자이다. 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신을 만물을 초월한 존재라고 본 데 비해, 스피노자는 신이 만물의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원인임을 강조하였다. ① 스피노자가 부정, ②, ③ 아퀴나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스피노자가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흄스, 병은 로크이다. ㉠, 흄스와 로크가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가 성립된다고 본 데 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적 동물이라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국가가 자연스럽게 등장한다고 보았다. ㉡, 흄스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치자의 권력이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로크는 통치자의 권력이 절대적이면 통치자가 잘못할 경우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흄스가 통치자의 절대권을 강조하긴 했지만 통치 권력이 개인의 자기 보존권까지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 로크는 묵시적 동의를 통해서도 정치적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제시문은 배려 윤리에 대한 나딩스의 주장이다. ⑤ 배려 윤리는 어머니의 모성적 배려와 같이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도덕적 행동이 나온다고 본다. ① 콜버그의 입장이다. ② 배려 윤리는 인간관계를 고려하여 행동할 것을 강조한다. ③ 배려 윤리는 남성과 여성의 도덕성이 다름에 주목한다. ④ 칸트의 입장이다.
  - 갑은 왕수인, 을은 주희이다. 왕수인은 심즉리(心即理), 지행합일(知行合一)에 기초하여 이론적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양지(良知)를 자각하고 실천하면 누구나 성인이 된다고 보았다. 주희는 성즉리(性即理), 지행병진(知行並進)에 기초하여 이론적 학습 과정과 내면의 수양을 동시에 해야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① 왕수인과 주희는 모두 사람 마음에 이치(이(理))가 내재하여 있다고 보았다. ②, ④ 왕수인과 주희 모두 긍정의 대답을, ③ 왕수인은 부정, 주희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갑은 칸트, 을은 벤담이다. ② 칸트는 경향성으로부터 행해진 행위는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본 데 비해, 벤담은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자연적 경향성이 도덕의 원천이 된다고 보았다. ①, ③ 칸트는 이성에 따라 행위할 것을 강조하였고, 도덕적 인간은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④, ⑤ 칸트는 실천 이성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도덕적 삶이라고 보았으며, 인간만이 목적 그 자체라고 여겼다. 또한 자유가 갖는 자율성 때문에 인간이 신성한 도덕 법칙의 주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 갑은 스토아 학파의 에픽테토스, 을은 에피쿠로소이다. 스토아 학파는 이성, 곧 자연에 따르는 삶을 바람직한 삶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우주와 세계의 질서에 순응할 것을 주장하였다. 에피쿠로스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보았다. 에피쿠로스는 올바르게 숙고하고 평가할 수 있을 때 참된 쾌락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아 이성의 역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①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는 모두 욕구를 절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갑은 노직, 을은 롤스, 병은 왈처이다. ㉠, 노직은 국가가 복지 정책 등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겼다. 한편 롤스는 아동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왈처도 복지 국가를 바람직한 국가로 보았다. ㉡, 롤스는 자연적이거나 사회적인 우연성을 배제한 가상의 상황인 원초적 입장에서 공정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노직, 롤스, 왈처 모두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해도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자유의 보장을 강조한 사상가는 노직과 롤스이다.
- 제시문은 흄의 주장이다. 첫째 관점, 흄은 도덕은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관점, 흄은 개인의 편협한 관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감의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셋째 관점, 흄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 쾌감을 느끼며 이것이 도덕의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넷째 관점, 흄이 도덕적 행동과 관련하여 이성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흄은 도덕적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이며, 이성은 우리에게 동기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가르쳐 준다고 주장하였다.
- 제시문은 원효의 주장이다. ㉡, ㉢, 원효는 일체의 모든 이론은 결국 그 깨달음의 바탕인 일심(一心)일 뿐이며, 하나인 마음의 진리를 각기 다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이론은 모두 진리의 한 부분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파의 특수성과 상대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면서 전체로서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원효는 글을 모르는 사람도 부처의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보았다. ㉣, 원효의 화쟁(和靜)은 종파나 이론의 특성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 갑은 자유주의 사상가인 밀, 을은 공동체주의 사상가인 매킨타이어이다. ㉡, 매킨타이어는 개인의 삶은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에 속해 있다고 보았다. ㉢, 매킨타이어는 인간은 공동체의 과거로부터 다양한 부담과 유산,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았다고 주장하였다. ㉣,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더 강조할 내용이다.
- 갑은 위정척사를 주장한 이항로, 을은 동학의 최제우이다. 위정척사는 유교적 가치 체계는 바른 것이기에 지켜야 하고 서양의 문물은 거짓된 것으로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학은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유·불·도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하는 백성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돕는다는 기치로 창시되었다. ㉡, 개화 사상, ㉢, 동도서기론의 입장이다.
- ㉠은 마르크스주의, ㉡는 민주 사회주의이다. 마르크스주의에 비해 민주 사회주의는 사회적 재화를 필요로 기준으로 분배한다고 보는 정도는 낮고(X : ㉠, ㉡), 의회주의를 통해 사회를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보는 정도는 높으며(Y : ㉠, ㉡, ㉢, ㉣), 공유제를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사유 재산도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정도는 높다(Z : ㉠, ㉡, ㉢). 따라서 ㉢이 정답이다.